

장흥, 저출산 위기 극복...지속가능 지역사회 구축

LOCAL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임신·출산 정책 확대...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출생기본수당·출산장려금·맞춤형 서비스 등 시행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생기본수당,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한층 강화된 임신·출산 지원에 나선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건강관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추진한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올해 시책 사업으로 장흥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 회복과 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도 나서,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최대 120만원까지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해 난임 진단을 받은 군민들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군의 난임시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기치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가 임신 및 2세 미만 출산 가정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 건강 상태 확인, 영유아 성장·발달 상담, 가정 내 안전사고 대처법,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강비 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1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출산을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이 의료비를 소

특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난청 진단자에게 최대 270만원까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사업에 9만원,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출산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장흥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여수,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성과 입증

여수시는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공공, 외교, 교육, 언론 등 7개 분야에서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국내 최초 기후변화 종합 시상이다.

시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33) 유치 홍보활동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 구성 등 7대 분야 5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도 예코에너지 허브 조성, 탄소중립실용(CCUS) 클러스터 구축 등 석유화학산업 저탄소 전환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한 2275여t 온실가스 감축 등 지역사회 참여 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시는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흥, 청사 구내식당 직영 운영 지역 생산 로컬푸드 재료 구성

고흥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청 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군청 내 구내식당은 외부 전문 기관이 운영을 맡으면서 타 지역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내식당에서는 고흥에서 생산된 쌀,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지역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식을 제공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과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선한 지역 로컬푸드로 구성된 식단이 맛과 영양 균형을 모두 갖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은 단순한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농업인들과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함평, 농촌·농림축산업 발전 ‘온힘’

내년 38개 사업·844억 확정

함평군이 농촌·농림축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나선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2025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부위원장 강하춘 부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장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 주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38개 사업, 844억원을 상정해 심의하고 확정했다.

2026년도 지원사업을 보면 농업분야 29개 사업 694억6600만원, 축산분야 2개 사업 107억9300만원, 임업분야 7개 사업 41억59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6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심의를 통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

올해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형 교육생태계’ 조성

올해 첫 정기이사회 개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청의 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에서 6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2025년 자금 운용 계획 등 2건의 보고 사항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선임안, 기부금 기본재산변입예외·사용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결산잉여금과 군 보

조금, 기부금 등을 반영해 본예산 57억 4300만원 대비 10억3108만4000원이 증액된 67억7408만4000원이 확정됐다.

조상대 이사장(군수)은 “재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장하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협력해 갈 것이다”며 “지역사회의 공감 받는 교육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 성장을 위해 2020년 곡성군과 전남도 곡성교육지원청이 공동 설립한 전국 최초 민·관·학 연합형 공익법인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곡성 주민 누구나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곡성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군, 교육청, 재단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